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 “플레이오프 목표로 뛰겠다”

광주시체육회서 미디어데이, 2024-2025 H리그 출사표 전지훈련 새 멤버들과 합 맞춰...1월 2일 경남 상대 개막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기치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18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신한 SOL Pay 24-25 핸드볼 H리그'를 앞둔 각오를 다졌다.

오세일 감독은 이날 "2년 연속 부상으로 사실 많이 힘들었다. 올해는 부상 없이 광주가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시즌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은 레프트윙 서아루-김서진, 레프트백 김지현-이아현, 피봇 김금순-박지호-연지현, 센터백 김금정-송혜수-김지선, 라이트윙 김수민-조연서, 라이트백 정현희, 골키퍼 이민자-유정원으로 구성됐다.

연지현, 김지선, 조연서는 지난 시즌인 드래프트 지명을 통해, 이민지는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된 '뉴페이스'다.

광주도시공사는 내년 1월 2일 오후 6시 정중 SK호크스아레나 경기장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시즌 첫 경기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총 21경기의 대장정을

치른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19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전지훈련을 떠나는 광주도시공사는 SK슈가글라이더즈, 중국장수팀, 한국체대 선수단 등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엔 광주로 돌아와 시즌 첫 경기에 앞서 컨디션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 시즌 주장을 맡은 서아루는 "내년에 8개 구단 중 가장 어린 팀이 되는데 새로운 선수들이랑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랑 같이 다시 플레이오프 진출에 도전하겠다"며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친구 같은 분위기로 얘기를 해야 운동할 때도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다. 같이 훈련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첫날보다 다음 날 더 손발이 잘 맞춰져 가는 것 같다. 전지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만년인인 김금순은 이날 "독특한 신임"으로 연지현 선수를 뽑았다.

김금순은 "연지현 선수가 장난기가 많다. 원래 있던 것처럼 언니들이랑 잘 어울리고 있다"며 "다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선수단이 18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직후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존 선수들이랑 합도 금방 맞출 수 있고 적응도 빨리 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오 감독은 "연지현 선수가 팀 피봇으로 수비 중 가장 어려운 가운데 수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지훈련에서) 그걸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적으로 보려고 한다. 실업팀 선수들과의 몸싸움이 라든가 스피드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가서 한번 경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감독은 "전지훈련에서 조금씩 손발을 맞춰

가면서 여기서 못했던 것들을 통해 부족한 면이나 단점 같은 것도 보고 오겠다"며 "열심히 해서 첫 게임에서부터 한번 좋은 단추를 꿰어보겠다"고 시즌 출발의 목표를 밝혔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G 트윈스, KBO 최초 샐러리캡 초과

야구발전기금 12억원 납부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샐러리캡(연봉총상한액)을 넘겨 야구 발전기금을 내는 첫 구단이 됐다. KBO 사무국이 18일 발표한 2024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에 따르면 LG는 138억 5616만원을 기록, 경쟁구형세 상한액 대비 24억 2천978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LG는 해당 액수의 절반인 12억 1489만 원을 야구 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KBO는 지난해부터 샐러리캡과 경쟁구형세 제도를 도입했다.

2021년과 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으며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23시즌에는 10개 구단이 모두 이 금액을 넘지 않았다.

경쟁구형세 상한액을 초과하면 1회 초과 시 초

과분의 50%를 야구 발전기금으로 내야 하고,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0%를 야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한다.

3회 연속 초과 시 초과분의 150%를 야구 발전기금으로 내야 하며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내려간다.

올해 LG를 제외한 다른 구단들은 상한액인 114억 2638만원을 넘기지 않았다.

KIA 타이거즈가 112억 4900만원으로 2위, 두산 베어스가 111억 9436만원으로 3위였다. 두산은 2023시즌에는 111억 8175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다. 삼성 라이온즈 111억 8100만원, 롯데 자이언츠 111억 5018만원, 한화 이글스 107억 1046만원으로 4~6위에 늘어났다. 7위부터 10위는 KT 위즈 105억 1641만원, SSG 랜더스 104억 5700만원, NC 다이노스 94억 7275만원, 키움 히어로즈 56억 7876만원 순이다. /연합뉴스

‘막내’ 페퍼스, 한국도로공사 잡고 시즌 최다승 도전

GS칼텍스에 승리 시즌 5승 오늘 도로공사와 김천서 경기

‘구단 최다승 타이’를 작성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상승세에 힘입어 최다승 신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페퍼스는 지난 14일 GS칼텍스 서울Kixx와 홈에서 치른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18 25-13 25-16) 첫 아웃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페퍼스는 구단 최다승 타이 '5승'에 성공했다.

외국인선수 테일러가 상승세 주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테일러는 공격 성공률 50%로 팀 최다 17득점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끌어 올렸고 뒤이어 이한비가 11득점, 아시아쿼터장위와 박정아가 10득점을 올리는 등 팀 승리를 합작했다.

페퍼스는 서브 득점 7-2, 블로킹 득점 8-0, 범실 7-14 등 큰 차이로 GS칼텍스를 압살했다.

높은 타점의 속공과 이동공격이 주 무기인 미들 블로커 장위도 현재 여자부 속공 4위(성공률 44%), 이동공격 3위(성공률 50%)를 기록 중이며 리시브 3위(성공률 42.32%), 디그 5위(세트당 4.65개)로 수비 종합 3위(세트당 6.86개)에 오른 '배데랑 리베로' 한다해도 수비 라인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다.

국내 공격수들도 기복없는 활약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이한비는 최근 3경기 연속 두 자릿 수 득점을 올렸고, 박은서도 팀이 부진한 순간에 투입돼 특유의 강한 스파이크와 공격력으로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선보인다.

페퍼스는 3라운드 중 구단 최다승(2022-2023 시즌, 2023-2024 시즌) 타이틀 기록하며 이전과는 다른 기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창단 이래 5승을 넘긴 적이 없던 페퍼스는 '1승'만 추가하면 구단 최다승을 경신하게 된다. 구단 신기록을 노리는 페퍼스는 19일 오후 7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격돌



‘구단 최다승 타이’를 작성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상승세에 힘입어 최다승 신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지난 14일 GS칼텍스 서울Kixx와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득점 성공 후 기뻐하는 페퍼스 선수단. (KOVO 제공)

한다. 페퍼스는 앞선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페퍼스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라운드 경기 3-0, 2라운드 경기 3-2 승리를 따내면서 올 시즌 상대 전적 2승0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V리그 여자부 5위(5승9패·승점 15)에 자리한 페퍼스는 '6위' 한국도로공사(3승 12패·승점

10)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정규리그가 22경기나 남아있는 상황, 페퍼스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6승' 달성을 코앞에 둔 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를 꺾고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FIFA 올해의 선수'

여자 선수는 '2년 연속' 본마티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24)가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선정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FIFA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24'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올해의 남자 선수'로 선정했다.

올해의 남자 선수는 2023년 8월 21일부터 올해 8월 10일까지 펼친 활약을 평가 기간으로 따졌다.

각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과 미디어의 투표 결과를 통해 결정하는 '올해의 남자 선수' 부문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48점을 따내 로드리(맨체스터 시티·43점)와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37점)을 따돌리고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2023-2024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공식전 39경기를 뛰며 24골(정규리

그 26경기 15골 포함)을 터트리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번 수상으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2007년 카카에 이어 17년 만에 'FIFA 올해의 선수'로 뽑힌 브라질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는 '더 베스트 FIFA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 11' 골키퍼에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스틴 빌라), 수비수에는 후행 디아스(맨시티), 다니 카르바랄, 안토니오 루디거(이상 레알 마드리드), 윌리엄 살리바(아스널)가 뽑혔다.

미드필더로는 주드 벨링엄, 토니 크로스(이상 레알 마드리드), 로드리, 공격수에는 엘링 홀란(맨시티), 아민 라말(바르셀로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선정됐다.

'올해의 여자 선수'에는 아이타나 본마티(바르셀로나)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올해의 남자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하는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화첩에 무등을 담다 : 조양희 개인전

일시 : 2024-12-6(금) ~ 2024-12-29(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4-12-01(일) ~ 2024-12-22(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12.13(금) 오후 7시 특별공연 (송년의 밤)
*12.20(금) 오후 7시 특별공연 (명인 협연의 밤)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